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곳 학교는 약 2개월간의 방학을 잘 마치고 설레임 속에 새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무엇보다도 이곳 사역을 충분하게 숙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어서 나름대로 유익 했습니다. 방학 동안 저를 도와 줄 현지 직원도 새롭게 채용해서 사역의 범위와 깊이를 더 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는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 학교 근교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전 Staff들의 Orientation을 겸한 Retreat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역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합류한 지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현지 사역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 대한 Presentation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었는데, 이 또한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 한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Retreat을 통하여 새로 오신 Staff들과 교제 하면서 부족한 각 사람을 세우며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생소한 이곳까지 오게 된 긴 여정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바울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인도 하시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Staff들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인도 하심도 마치 바울의 여정과 같이 유사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방법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계획과 달리 지연 되고, 돌아 가고, 장애물을 만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멋진 승리를 이룬다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 곳에 와서 또 다른 여정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고, 또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역경들이 첩첩히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를 넉넉히 이기리라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아주 자주 온 몸을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청결한 곳에 위치 한다고 할 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과 아주 쉽게 접하기 때문에 미처 털어 내기도 전에 아주 쉽게 물리곤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름도 모르는 다양한 생김새와 색깔의 곤충들이 끊임없이 바닥, 벽, 책상을 따라 저에게도 접근을 합니다. 혹이라도 단 것을 떨어뜨리면 그 곳 주위는 삼시간에 벌레들로 야수라장이 됩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온갖 날 벌레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 오는지도 모르게 사방 팔방에서 방 안으로 들어 오곤 합니다. 아무리 모기약을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도 역부족 이어서 마침내는 종이를 말아서 날벌레를 따라 방안을 뛰어 다녀야 합니다. 특히 모기가 보일 때에는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추격전에 몰두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댕기(Dengue) 모기에 물리면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난 후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달전에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Staff의 가족이 댕기 모기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병 문안을 간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밤에 잠 자리에 들 때에는 고통스럽게 모기장을 쳐야만 안심하고 단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을 하고, 퇴치를 하여도 온 몸에는 여전히 날마다 선명하게 새롭게 물린 자국들이 돌아 납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긁었던 흔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Stigma / The marks of Jesus)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또 다시 온 몸을 긁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 6:17)**

 해변 교회의 토요일 성경 암송 Program이 은혜스럽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교사들에게도 충만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에 일찍 모여서 청소로 시작을 해서 모든 Program이 끝난 이후 청소로 마감을 해야 하는 곳은 일까지도 모두들 밝은 모습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아주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암송 Program이 종반전으로 접어 들고 있어서 암송한 성경 구절들을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는 기회가 많은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그 주위를 맴돌며 신기하게 바라보는 3~4살 되는 아이들도 영어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암송하는 2~3 구절들은 저절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도 아이들이 암송한 구절을 점검해 달라고 교회에 찾아 오기 때문에 이제는 설 시간도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만을 외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적용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만 아직까지 이곳 해변교회에는 어린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즉 이곳 교회는 장년이 참여하는 예배와 이들이 데리고 오는 소수의 아기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 드러지는 어린 학생들의 예배가 너무 귀하고 절박합니다. 토요일 성경 암송 Program을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이 Program이 주일 예배로 이어 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이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알 수 없는 이들만의 일을 하는 순서와 방법과 고충이 있겠지만 하루 빨리 어린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성도님께서도 이 해변 교회에 어린 학생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있을 수 있도록 기억 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3)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Prayer Request

-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 흠어져 있는 두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